

“서울에선 ‘잉여인간’...지역에선 ‘필요한 사람’ 됐어요”

서울청년 지역살이 시범 프로젝트...75% “다시 참여”

참여자 “지역에서의 경험으로 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서울에서는 ‘잉여인간’ 취급을 받았는데 지역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돼 좋았어요. 서울을 벗어나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울 청년이 전국 각 지역에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한 강다솜씨(30)의 소감이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12시 로컬스터치 소공점에서 지난해부터 6개월 동안 추진한 서울청년 지역살이 시범사업인 ‘청정경북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성과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청정경북 프로젝트를 통해 45명의 서울 청년이 안동·청송·예

천·문경·상주 등 경북 5개 지역에서 활동했다. 각 지역 농업법인, 관광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19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며 맥주 양조를 배우고 농업 가공품 마케팅,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펼쳤다.

강다솜씨는 경북 청송 청년연구소에서 ‘꿀맹이 사과’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했다. 그는 “서울살이는 늘 출구 없는 고민이었는데, 여기서는 활기차게 일에 집중하며 지냈다”며 “지역에서의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좀 더 현실적인 꿈을 꾸는 법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주다움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활동한 박은정씨는 “내가 살아야 할 곳의 선택지가 서울 딱 한 곳이었을 때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며 “지역에서의 새로운 경험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고, 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 및 기업·기관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청년 참가자 중 75%(34명)가 올해 사업에서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참여 기업과 사회공헌기관의 만족도도 각각 5점 만점에 4.3점, 4.2점을 나타냈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이 사업을 서울 청



년 3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활동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박원순 서울시장 “1호 서울청년 지역살이 청정경북 프로젝트는 서울-지역 상생의 새로운 가능성

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e스포츠 육성 및 건전 게임 문화 확산 나선다

이스포츠타회 참가국 확대·경기게임문화센터 설립 등 추진

경기도가 이(e)스포츠 육성사업 확대와 (가칭)경기게임문화센터 설립 등을 통해 건전게임 문화 확산에 나선다.

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이스포츠클러스를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기 이스포츠클러스 육성 계획’을 추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2020년 경기 이스포츠클러스 육성 계획에는 △경기 국제 e-스포츠타회 참가국 확대 △가족 e-스포츠펠티비 규모 확대 △아마추어 유망주 지속 지원 △연관산업 종사자 육성사업 교육지역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우선 도는 경기국제이스포츠타

회(WeC) 참가국가를 확대해 대회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이스포츠타회 참가 국가를 지난해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올해 10개국(미국, 프랑스, 브라질 등 추가)으로 늘려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마추어 유망주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국제이스포츠타회 상위 입상자 26명을 대상으로 장비 등을 지원한 결과, 한화생명 e스포츠클러스 고교챌린지 우승, 카트라이드 리그 시즌 2 우승, DPG 아카데미 시즌 2 우승 등 각종 국내 이스포츠타 대회에서 우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중 6명은 프로구단에 입단(1

부프로구단 1명, 2부프로구단 5명)하는 등 프로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유망주들의 기량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장비 지원 등에 1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스포츠클러스 중 다른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트리머(인터넷 방송) 과정, 콘텐츠 제작자 과정을 운영해 연관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장소를 남부 1개소에서 북부지역 1개를 추가 운영해 이스포츠클러스 관련 산업 공간을 탄탄히 다질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해 아프리카대지열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취소된 ‘군

인 이스포츠타회’를 다시 추진해 다양한 계층에서 이스포츠클러스를 즐길 수 있도록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건전게임 문화 확산을 위해 (가칭)경기게임문화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경기콘텐츠진흥원 내 게임문화팀을 신설했으며,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계동 도 경제실장은 “경기도는 그동안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제는 그 대에 게임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월 중소 게임 기업 집중지원과 이스포츠클러스 등에 2022년까지 533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뉴스1

애경그룹, 송도에 ‘종합기술원’ 세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부지 매매 계약

애경그룹이 송도에 종합기술원을 건립한다. 미래 먹거리 발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애경그룹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B구역 내 부지 8688평(2만8722㎡)를 345억원에 매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후 애경그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애경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애경유화과 애경산업이 각각 6:4의 비율로 투자했다. 애경그룹 송도 종합기술원은 총 연면적 1만3007평(4만3000㎡) 규모로 건설된다. 2021년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애경그룹은 송도 종합기술원을 설립하고 기초, 원전,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를 전담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송도 종합연구원에 연구개발 인력만 400명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첨단소재개발 △특수기술 확보 △친환경&바이오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석 AK홀딩스 사장은 “애경그룹 송도 종합기술원 설립을 통해 우수 인재 확보와 산학연 네트워크 등을 활성화해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계획”이라며 “그룹의 주력 사업인 화학, 생활용품, 화장품 분야에서 퀀텀 점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애경그룹 종합기술원 유치가 최첨단 미래 기술 연구의 메카인 송도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연구중심 도시로 본격 도약하기 위해 애경그룹을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뉴스1

강릉 커피여행 할인받고 떠나볼까...야놀자 기획전

강릉 인기 숙소 최대 87%, 레저 상품 최대 35% 할인

여가 플랫폼 야놀자가 ‘강릉 커피 여행’ 기획전을 진행한다

야놀자는 오는 16일까지 강릉 커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숙소의 숙박비를 최대 87%, 강릉 지역의 레저 및 액티비티 상품도 35% 할인한다.

해당 숙소로는 세인트존스호텔, 메종드샤펜션, 휘게노블레스파펜션 등 강릉에 자리한 인기 호텔과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약 160여 곳이 있다.

더불어 야놀자는 강릉 커피 여행을 실속 있게 즐길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



야놀자 애플리케이션의 ‘떠먹는 라떼 마사리 같가요’ 페이지에서 강릉 커피가 유명한 이유며 추천 카페 리스트, 커피와 함께 즐기

는 데이트 코스 등을 소개한다.

추가 할인 혜택도 있다. 기획전 내 모든 숙소와 레저 상품은 간편결제 앱 차이로 결제할 경우 10%(최대 2만원) 추가 할인을 적용해 준다.

차이로 결제 시 숙소는 최대 90%, 레저는 최대 42% 할인가로 예약할 수 있다.

해당 혜택은 일 기준 최대 5회 적용되며, 동일상품은 일 최대 3회, 주 최대 7회까지 받을 수 있다.

강석환 야놀자 마케팅전략유닛장은 “강원도는 트레킹의 숙소,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다양한 액티비티 등을 갖춰 지속적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여행 트렌드에 기반한 여행 정보와 혜택을 제공해 국내 여행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

청주시민 매년 자원봉사자 증가 추세

작년 등록 자원봉사자 16만9514명, 등록률20.19%

충북 청주시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6만9514명으로 인구 대비 자원봉사자 등록률 20.19%(인구 83만9615명)를 보였다.

시 자원봉사 등록 인원과 인구 대비 등록률은 2017년 13만7802명, 16.49%(인구 83만5590명), 2018년 15만724명, 17.93%(인구 83만7606명)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원봉사 총 참여인원을 나타내는 연인원 수도 2017년 41만8638명, 2018년 42만2652명, 지난해 46만1990명으로 시 인구의 과반수를 넘었다.

시는 자원봉사 등록 인원 증가에 따라 올해 자원봉사 활동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4.6% 늘린 9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자원봉사 활동 영역 확대 등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원봉사 등록 인원 증가는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 관심 증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 중구, ‘울산마두희축제’ 6월 말 개최

울산 중구는 28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2020년 제1차 울산 마두희 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축제를 단오인 6월 25일(음 5월5일) 다음날인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마두희는 조선시대인 1700년대 초부터 단오날에 병영과 울산부의 사람들이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 3관 2승제로 승부를 겨루는 전통 줄다리기 행사로 32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중단됐다가 2014

년부터 복원돼 매년 개최하고 있는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풍속이다.

박태원 중구청장은 “지난해 원도심 일원에 프로그램을 집약시키면서 축제 분위기를 극대화해 26만여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올해도 선택과 집중을 잘한다면 한층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2014년부터 울산마두희축제로 통합해 개최하고 있다.

뉴스1

‘예산사과빵’ 출시...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협의 중



사과의 고장 충남 예산군 예산 사과융합발전사업단은 사과를 활용한 관광상품으로 ‘예산사과

빵’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해 1월

공주대학교 식품공학과 변의홍·오철환 교수팀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과를 이용한 사과빵 개발을 시작

뉴스1